

우크라이나 민족복식의 조형성

최수빈[†] · 조우현*

인하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교수[†]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Ukrainian Ethnic Dresses

Su-Bin Choi[†] · Woo-Hyun Cho*

Research Prof., Institute of Human Ecology, Inha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Inha University*
(2004. 6. 16. 접수; 7. 12. 채택)

Abstract

The traditional Ukrain costume has been gradually developed and influenced by the climate and political, economical environments. The national costumes has represented the beliefs and understanding of people about the beauty and harmony of the world. Eastern Europe and Northern Asia are considered as the origins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nd the artifacts ranged from over the Black Sea to 'Skitai' and Northern Asia to 'Noinoola' support this hypothesis. This study is investigat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Ukrain national costume especially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Ukrain, Men wear 'Rubaha' (shirts style's upper garment-in Ukrain Sarochka) and trousers, women wear 'Rubaha' with vest and a skirt and a head gear were worn. Ukrain is consisted with three group - 1) Dnipro region-included the Kiev region in the center of Ukrain, 2) Polissia region in the northwest of Ukrain and 3) Hutsul-Zakarpattia region in the west of Ukrain. These three groups have there own different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Ukrain traditional costume.

Key Words : Ukrain traditional costume(우크라이나 전통복식), Sarochka(사로취카-с о р о ч к а), Sharovary(샤라바리-ш а р о в а р ы), Obgortka(오브고로트카-О б г о р т к а), Headgear(두식)

I. 서 론

2004년 5월 1일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

니아, 몰타, 키프로스등 동유럽10개국에 추가로 E.U.에 가입되어 E.U.는 인구 4억 5천만명에 달하는 세계무역의 20%를 차지하는 단일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EU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투자가 용이한 동유럽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지며 동유럽민족의 여러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Su-Bin Choi
Tel. +82-19-267-4535, Fax. +82-32-865-8130
E-mail : subinchoi@hanmail.net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역사적으로 동유럽은 여러 민족의 활동무대이자

동서양 문화의 교차로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슬라브 민족이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 민족으로 나뉘어져 여러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슬라브민족인 우크라이나민족의 전통복식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따뜻한 흑해 연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크라이나는 드네프르강과 흑해를 통해 동서양문화를 활발히 받아들이기도 하였지만 고대 동슬라브족 국가형성의 기틀을 잡은 키예프 루시(공국)의 후계자이기도 하다.¹⁾ 일반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동안 천천히 변화되는 전통복식은 각 민족의 고유한 미의식과 조형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 키예프 루시의 후계자인 우크라이나의 민족복식은 동슬라브의 대표적인 전통복식으로 동슬라브전통복식 연구에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전통복식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각 지역의 전통적인 조형성을 규명하고 우크라이나 전통복식의 조형성을 기준하여 동유럽에 거주하는 서, 남 슬라브민족의 전통민족복식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형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를 지역적 민족적인 구분을 토대로 구분된 세 지역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에 초에 착용되어진 우크라이나 전통복식을 니콜라예브나 T.A., 마테이코 K.I. 등 여러학자의 연구업적과 현지 과학 아카데미 민속 박물관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였다.

II. 역사적 배경

흑해 북쪽연안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에 속하며 동쪽으로 러시아공화국, 북쪽으로 벨라루시공화국, 서쪽으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남쪽으로는 헝가리, 루마니아, 몰다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²⁾ 우크라이나 지역은 B.C. 6세기부터 B.C. 3세기에 걸쳐 서쪽으로는 헝가리에서부터 러시아와 남 시베리아, 키르키즈 초원, 알타이 산맥과 몽고고원을 거쳐 동쪽으로는 한반도에까지 이르는 유라시아 초원과 스텝지대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대 스키타이민족의 정착지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중심으로, 9세기 초에 설립된 러시아 초기의 강력한 공국인 키예프 공국(Киевский Русь)은 988년 비잔틴의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이며 루시(공국)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동슬라브민족의 국가기틀을 형성하였다. 이후 11-12세기, 키예프 공국의 쇠퇴와 함께 13세기 몽골 - 타타르의 지배로 단일 민족이었던 동 슬라브족은 러시아, 백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족으로 분화되며 동시에 민족복식도 분화되었다.

키예프 공국(Киевский Русь)이 쇠퇴한 후 갈리치 볼린 공국이 성립되었지만 갈리치야는 폴란드에, 볼린은 리투아니아에 귀속되었다. 14세기 갈리치가 형성되면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의 지배를 받게 되며 15세기부터 스텝지역에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 이주 한 농민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인 카자흐집단을 형성하여 타타르인 카자흐와 경합을 벌이고 타타르화가 되면서 군사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우크라이나 카자흐는 그 키예프의 보호자로서 정교회신앙을 가진 자각적 민족집단으로 성장하여 폴란드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시작하였으나 폴란드와 모스크바공국은 우크라이나를 분할하여 폴란드와 러시아에 복속시켰다.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2세는 1783년 러시아령의 우크라이나를 소러시아라 이름 짓고, 여러 직할현으로 분할하여 러시아화를 꾀하였다. 폴란드령인 서우크라이나에서도 정교회인 카자흐 카톨릭인 폴란드에 대하여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어 폴란드의 요청으로 러시아군이 파견되며 갈리치야를 제외한 대부분이 러시아령이 흡수되어 현재의 우크라이나 국경이 형성되었고 러시아혁명과 2차대전 이후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연방공화국시대를 거쳐 뼈레스트로이카 이후 우크라이나공화국으로 완전 독립하였다.

III. 우크라이나의 민족복식의 형성배경

복식학자인 코미사르쥬스키(Коммиссаржевский)는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러시아 및 백 러시아를 포함한 전체 동 슬라브 전통복식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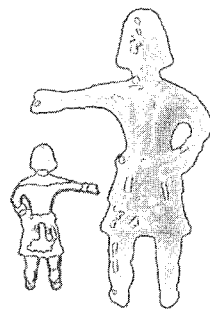
를 흑해연안의 고대 슬라브민족복식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코미사르첵스키는 17세기 피터대제 이전 시대까지의 동슬라브민족복식을 4개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스키포-사르마트스키(скиф-сарматский) 영향권 시대와 노르만(норманский)의 영향권 시대, 988년 키예프 루시에서 정교회를 국교로 지정한 이후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잔틴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비잔틴(византинский)의 영향권 시대 그리고 13세기의 몽골 타타르의 침략으로 인한 몽골(монгольский)-타타르(татарский) 영향권 시대로 나누었다. 피터대제는 러시아의 서유럽화운동을 일으켜 서유럽복식이 도입되었다. 동슬라브 민족복식은 아주 느리게 변화되었으며 새로운 복식은 왕족과 귀족들 상류계층에 국한되어 유행되었다.³⁾

동슬라브민족 고대 복식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국여행자들에 의해 자료가 조금 남아있을 뿐이다. 코미사르첵스키는 고대 슬라브족은 같은 지역에 정착하여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스키타이와 사르마트족과 동일한 의복을 착용하였으리라 가정하였다. 스키타이의 유물에서 보이는 칼라가 없는 긴 루바하(рубаша)에 앞을 여며는 자켓을 입고 허리띠를 띤 스키타이의 복식을 슬라브족도 채택하였으리라 주장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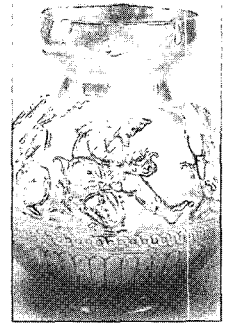
고대 자료가 발견되면서 루바하가 고대로부터 이어온 동슬라브민족의 기본복식임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고대 유물자료는 책의 일러스트나 조각 등의 인물상들로 루바하를 착용하고 있다. 루바하라는 이름은 고대연대기표에도 등장한다.⁵⁾

전통적으로 루바하는 성긴 옷감으로 만든 긴 튜닉형의 평상복이다. 짧은 루바하의 착용모습은 6세기 우크라이나 뿔타프쉬지방의 청동상에서 발견되었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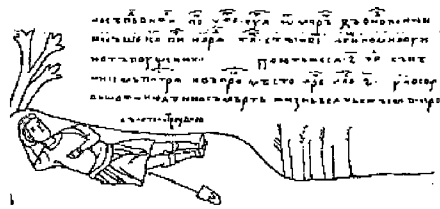
기원전 5-6세기 스키타이의 꼴옵스키와 초르토믈스키 고분에서 출토된 병위에 부조는 허리띠로 묶은 자켓 안에 입고 있는 옷은 속옷으로써 전통슬라브민족의 루바하와 차이가 있다<그림2>. 고대 동슬라브민족의 루바하는 튜닉형 의복이다. 루바하의 구조는 튜닉형의 몸통에 직선 소매와 목둘레선에 절개선이 있다. 러시아 대공국시대 러시아에서는 목둘레 앞부분이 직선으로 절개되고 칼라가 없는 루바하(голошѣки)가 널리 입혀졌다. 목



<그림1> 6세기 청동상 뿔타프쉬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ний
одяг, р.10



<그림2> 스키타이유물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p.4



<그림3> 고대슬라브족의 사로취카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ний одяг, р.21

둘레의 옆부분이 절개된 루바하를 옆절개루바하(косоворотки)라고 하는데 타타르는 이 복식을 러시아 루바하라고 하였다⁶⁾<그림3>.

IV. 19c-20c초기 우크라이나 민족복식

우크라이나 여성민족복식은 아마로 된 긴 루바하인 사로취카와 치마나 여러 종류의 하의용 천이다. 하의 위에는 앞치마를 둘렀고 사로취카(сорочка)위에 조끼를 착용하였다. 남성도 사로취카위에 다양한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였다. 首髮樣式과 관모는 기혼녀와 미혼녀로 구분하여 착용되었다. 남자도 여러 종류의 관모를 착용하였다. 여러가지 우크라이나 민족복식은 지역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역적으로 1. 중부지방 2. 북부지

방, 3. 서부 지방으로 지역을 나눈다. 이 지역적 구분은 우크라이나민족을 유입종족에 따라 나누는 세그룹과 비교적 일치한다. 키예프와 드네프르강 유역 즉 우크라이나의 동쪽 부분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 북부의 폴레시아(Полесье)지방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 서쪽의 구쥘과 자카르파치야(Закарпатсье)족 및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진 서부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세 지역은 사로취카를 착용하고 하의에 바지나 치마를 입고 조끼를 입는 것이 공통적인 盛裝의 모습이나, 그 형태가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민족복식의 형태와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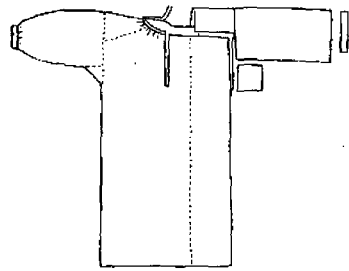
1. 상의 - 사로취카(сорочка)

고대 슬라브민족의 사로취카는 남녀모두 같은 모양이었다. 우크라이나의 폴로미스키 지방에서는 19세기까지 긴 발목길이의 사로취카를 입었다. 키예프공국의 사로취카 칼라가 없는 구조이며 19세기에 이르러 커프스도 형성되었다.

우크라이나에는 주름이 풍성한 사로취카가 발달되었는데, 19세기 후반 도시복식의 영향으로 주름이 풍성한 사로취카가 지방에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목둘레와 소매와 어깨의 우스타프카(уставка)에 잡은 풍성한 주름은 풍만한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삼각형의 우스타프카가 달려있는 사로취카는 후에 백러시아와 발틱까지 영향을 주었다.

사로취카는 아마나 대마로 만들었다. 사로취카의 패턴은 직조된 직물의 너비로 인해 결정되는데 집에서 직조한 직물의 넓이는 37-38cm로 일반적으로 사로취카는 3-4폭의 천을 연결하여 만들었다. 19세기 말에는 옷감의 폭이 47-49cm로 넓어졌다. 축제용 사로취카는 도덜나(подільна)라고 하였고 길이가 무릎까지 왔다. 일상용 사로취카는 윗부분은 아마로 만들고 아랫부분은 성근 천으로 만들었다. 이 아랫부분을 도 뽀취키(до підточки)라고 불렀다. 사로취카에는 우스타프카라는 앞판과 뒷판과 소매와 연결하는 요크가 있는데, 사로취카를 패턴상으로 분류하면 우스타프카가 있는 사로취카와 우스타프카가 없는 사로취카로 구

분할 수 있다. 우스타프카가 없는 사로취카는 앞 뒤판에 직접소매가 달린다. 이런 모양의 사로취카는 종종 칼라와 커프스가 안달렸다. 우스타프카가 있는 사로취카를 '도 우스타프키'(до устави)라하고 우스타프카가 없는 사로취카를 홀로판카(хлопянка)라고 하였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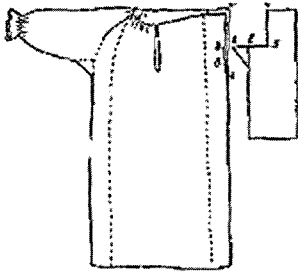


(그림4) 도 우스타프키 사로취카
Ukrain folk costume, p.266

도 우스타프키(до устави)의 패턴과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크기의 직사각형의 천을 재단하여 가장 큰 직사각형을 몸판으로 하고 다음 작은 2개의 직사각형 천을 소매로, 그리고 다른 2개의 천을 우스타프카로 하며 나머지 천은 2개의 무와, 2개의 커프스와 2개의 칼라로 사용하였다. 바느질 순서는 먼저 우스타프카와 소매에 수를 놓고 몸판 천을 이등분하여 앞판과 뒷판으로 마름질하고, 앞판에 목둘레선에 절개선을 넣는다. 이 절개부분을 빠주하(пазуха)라고 한다. 빠주하를 길에서 깔치리한 후, 솔기부분은 박음질로 튼튼하고 촘촘하고 아름답게 봉제한다. 수놓은 어깨부분(우스타프카-установка)을 앞, 뒤 몸판에 달아, 앞, 뒤 몸판이 우스타프카로 연결된 모양이 되게 한다. 수 놓여진 소매천은 소매통을 붙여 우스타프카(установка)가 연결된 몸판에 단다. 소매를 2줄의 박음질로 몸판에 연결하고 소매 밑에 무를 달아 활동의 여유를 주었다. 목둘레선에 고운 주름을 잡고 가는 밴드로 감싸 칼라를 만들고 칼라 끝에 끈을 달아 여몄다. 사로취카의 총 길이와 소매통의 넓이는 다양하였다. 서부 우크라이나의 사로취카는 비교적 소매통이 좁고 셔츠의 길이도 짧았으나 구쥘지방의 사로취카는 무릎까지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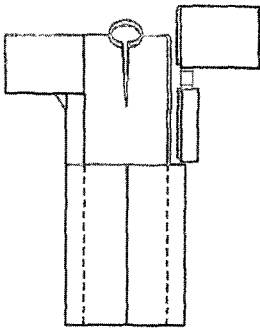
다른 종류의 사로취카는 소매에 우스타프카가

달려있는 형태이다. 도 우스타프카 사로취카는 서쪽제방지역에서 주로 입혀지고 소매와 우스타프카가 한 장으로 연결된 사로취카는 동쪽제방지역과 서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입혀졌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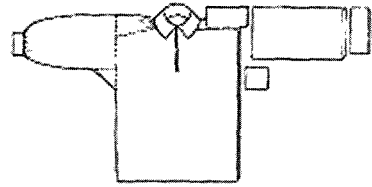
<그림5> 우스타프카가 소매에 연결된 사로취카
Ukrain folk costume, p.266

세 번째, 사로취카의 종류는 홀로쁘키(хлопянки)라고 하는데 근대적인 사로취카이다. 부코비냐와 자카르빠타지방에서 주고 입혀졌다. 이 사로취카의 패턴은 몸통과 소매와 무와 칼라로 어깨 달림천(우스타프카)이 없다. 앞, 뒤 어깨선이 골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목둘레선만 절개하였다. 몸통은 자수로 장식하였다. 몸통은 옆에 천을 덧대 사로취카의 넓이를 확장하였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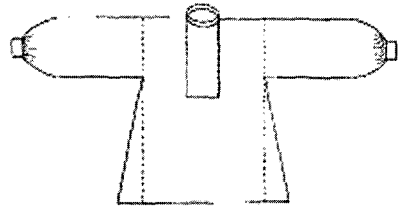


<그림6> 홀로쁘키
Ukrain folk costume, p.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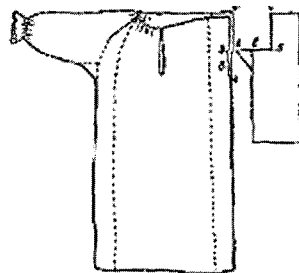
남자의 사로취카는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 우스타프카<그림7>와 스타일 사로취카<그림8>, 추막(Чумацька) 사로취카<그림9>와 렘코(Лемківська) 사로취카가 있다. 튜닉스타일의 사로취카는 넓은 천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앞, 뒤



<그림7> 남성용 도 우스타프키 사로취카
Ukrain folk costume, p.266



<그림8> 남성용 튜닉 사로취카
Ukrain folk costume, p.268



<그림9> 남성용 추막 사로취카
Ukrain folk costume, p.267

판이 연결된 몸판에 소매를 연결하고 옆선과 소매 사이엔 삼각형의 무를 달기도 하였다. 목둘레선의 트임은 왼쪽에 주었고 직조한 장식판을 목둘레선 바로 아래 가슴부분에 부착하였다.

추막(Чумацька)사로취카는 홀로쁘키(хлопянк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렘코(Лемківська)사로취카의 기원은 오래되었으며 이 스타일은 홀름쉬나(холмщина)지방의 특징적인 스타일이다. 폭이 좁은 수직천을 사용하여 여러 조각으로 연결되었다. 가슴판도 나뉘어져서 이곳에 수를 놓았다. 보이코(Бойківщині)지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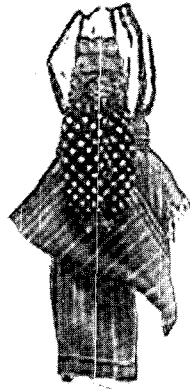
는 램코(Лемки)사로취카에 자수장식을 하지 않았다.⁸⁾

우크라이나의 사로취카는 흰색 아마에 화려한 자수장식을 하였다. 검정과 빨강, 녹색으로 자수를 놓았으며 자수의 문양은 기하학적 문양과 사실적인 꽃문양을 사용하였다. 자수는 대체로 칼라나, 칼라밴드, 우스타프카나 소매에 수를 놓아 장식하였고 간혹 몸통 전체에 수를 놓기도 하였다. 자수의 형태나 색상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은 문양의 테두리를 검정실로 수를 놓고 그 안을 빨간색의 평수로 메웠다. 드네프르지역은 붉은 색과 흰색으로 십자수기법으로 자수를 놓았다. 서부지역은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였는데 빨강과 파랑, 노랑과 초록 등 원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수를 놓았다. 벨레시야 지방은 백러시아와 아주 흡사하게 빨강색의 기하학적 무늬를 수놓았다. 이 지역의 자수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보다 검정색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검정색의 기하학적 무늬가 수평으로 나열되기도 하였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로취카에는 기하학적 무늬의 수평이나 수직으로 배열하고 수평선을 배열하여 수장식을 하였다.

자수의 문양은 기하학적 무늬가 많이 사용되다 후대에는 사실적 문양들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서부지역에 사는 구족인들은 여러 가지 색상의 실로 수놓았는데 기하학적 무늬를 사용하다가 19-20세기 초에는 꽃무늬를 많이 사용하였다. 여성의 사로취카는 남자의 사로취카와 유사하며 다만 크기가 작고 무늬가 적었다.

2. 치마

우크라이나 여성 하의는 네모형의 단순한 형태로 치마의 기원적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오브고르트카(Обгортка), 고르바트카(Горбатка)의 형태는 80cm폭의 천으로 사로취카의 밑자락이 보이도록 몸에 휘감아 둘러 입고 아래 앞자락 끝을 접어 올려 허리띠 안에 끼우는 형태로 착용한다. 서쪽의 웨르나비츠지방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둘러 입어서 오른쪽 끝을 올려 허리띠 안으로 넣었다. 미혼녀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둘러 입어 왼쪽 끝자락을 올렸다. 고르바트카는 두 끝을



〈그림10〉 오브고르트카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го костюма, р.95

은 부분에 가로질러 넣은 후 솔기부분이 몸의 뒤로 가게 몸의 앞부분을 덮어 허리에 고정시키고 봉제하지 않은 끝부분을 들어올려 허리띠에 끼우면 밑자락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천의 앞면무늬가 보이게 하기 위하여 천의 반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면에 무늬를 직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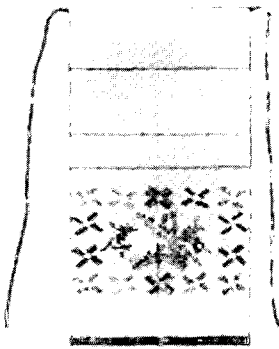
플라흐타를 착용하고 그 위에 또 다시 넓은 허리띠를 하였다. 플라흐타를 착용하면 양끝자락이 겹치지 않아 앞부분이 열려 있는데 그 위에 앞치마를 두른다. 이 앞치마를 자빠스카(Запаска)라고 한다. 플라흐타(Плахта)의 끝자락에 털실방울을 달아 장식을 하였다⁹⁾ <그림11>.



〈그림11〉 플라흐타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го костюма, р.72

우크라이나 중앙에 위치한 폴타프스키(Полтавський)지방은 한 장의 천으로 된 플라흐타를 착용하였는데 이를 스탄카(станка)라고 하였다. 플라흐타는 슬라브민족의 오래된 복식으로 이 모양은 남슬라브 민족에서부터 시작하여 발칸의 슬라브족에까지 입혀졌다.

우크라이나 중부지방과 서쪽의 볼린스키(Волинський)와 스타니슬라쉬지방과 자카르파트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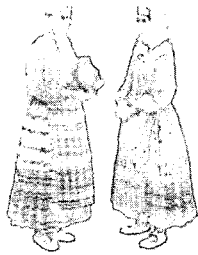


<그림12> 자빠스카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ний одяг, p.72

에서 구출인은 두장의 자빠스카를 앞, 뒤에 착용하였다. 뒷부분의 자빠스카는 앞부분의 것보다 넓었다. 우크라이나 중부지방의 자빠스카는 검정과 검푸른색이었다. 뒷자락을 먼저 입고 끈으로 고정시킨 후 앞자락을 착용하고 그

위에 허리띠를 둘렀다<그림12>.

19세기에 들어 우크라이나의 농촌에서는 사각형 모양의 천 대신 치마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크라이나 북쪽의 볼레시아는 백러시아의 볼레시아지방과 같이 안다락(андарак), 레트닉(летник), 스비드니짜(свидниця)등을 착용하였다. 안다락(андарак)은 빨간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아랫자락엔 수나 직조로 많은 장식을 첨가하였다. 레트닉(летник)은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 세로줄 무늬의 치마이다. <그림13> 우크라이나 주름치마는 6-8장의 카시미르나 색깔있는 새틴, 줄무늬나 입방체무늬 사라사와 다른 여러 천으로 제작되었다. 치마 위에도 자빠스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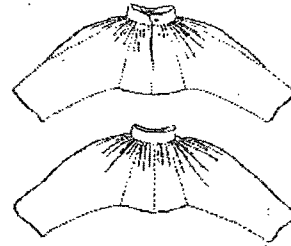
<그림13> 안다락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го костюма, p.95

3. 바지

바지는 고대 동 슬라브 민족 남자의 기본 의복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바지의 출현은 스키타이시대 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슬라브 민족에게 있어서 바지에 관한 기록은 6세기 10세기의 역사서에도 등장하는데 일상복이 아니라 군인의 옷으로 이용

된 것으로 여겨진다. 우크라이나의 바지는 뽀르타니찌(портяниця), 가취(гачі), 가티(гати), 스포드니(сподні), 간후찌(ганьци) 홀로쉬니(холошні)라고 불렸다. 넓은 바지인 샤라바릭(шаровары)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입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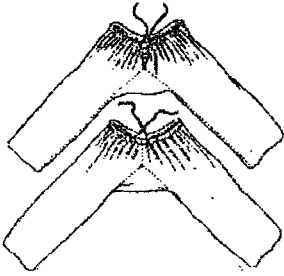
우크라이나의 고대 바지는 통이 좁고 가랑이가 위에서 맞물리고 가운데 무가 달린 형태였다. 아직도 이런 형태의 바지가 민속복으로 남아있다. 중부의 드네프르지방은 15세기부터 샤라바릭(шаровары)가 많이 입혀졌다. 샤라바릭은 넓은 통의 바지의 총칭이며 빨강이나 파랑색의 면이나 모로 만들어졌다. 샤라바릭은 말을 타고 다니기 편리하여 카작인의 옷으로 채용되었다. 일상용 바지는 일하기 편리하게 통이 좁고 흰색의 성근 면으로 만들어졌다. 바지 위로 사로취카를 내어 착용하였다 <그림14>.



<그림14> 샤라바릭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го костюма, p.69

샤라바릭의 패턴은 단순하여 40cm 정도의 넓은 바지통의 끝을 삼각형으로 잘라내고 이 두 천을 길이로 연결하여 사각형으로 만들어 두 바지통의 사이에 연결시켰다. 삼각형의 무(матня-матня)의 밑변부분이 아래쪽을 향하여 연결하여 통을 넓게 하였다. 허리부분을 드로우스트링(drawstring)으로 마무리하여 끈이나 가죽으로 조여 입었다. 바지통 아랫부분도 도로우스트링(drawstring)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 형태의 바지는 동유럽의 유목민족이나 서아시아민족과 카프카스 민족, 중앙아시아와 우랄과 시베리아의 카자흐인들의 복식과 유사하다.

뽀르트(порт)는 18-19세기의 농촌의 통이 좁은 바지이다<그림15>. 이 형태의 바지는 러시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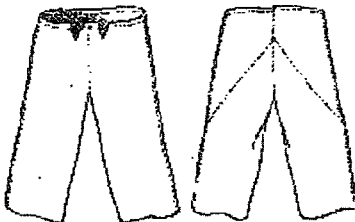


〈그림15〉 뽀르트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русских, украинцев и белорусов в XIX-начале XXв, р.593

백러시아에서도 널리 착용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북부지방에서 많이 착용되었다. 첼르니고프스카야(черниговская) 지방의 북부 부코비나(Буковина)지방에서는 뽀르타니찌(портяниця)를 착용하였다. 여름성장용 바지는 린넨으로 만들었으며 일상용 바지는 대마로 만들었다. 겨울용 바지는 가취(гач)라고 하며 펠트로 만들었다. 바지통과 삼각무를 바지허리에서 연결하였다. 허리부분을 도로우스트링(drawstring)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아취꾸르(очкур-끈)로 여몄다. 바지통 밑부분은 찌르카(цирка)로 마무리하였다. 보이코(Бойко)지방의 가취는 좁은 바지통이 삼각형무와 연결되었다.

서부지방에서는 홀로쉬니(холошні)가 많이 입혀졌는데, 울로 만들어진 겨울바지를 홀로쉬니(холошні)라고 하였다. 통이 좁고 가운데 무가 없는 바지로 서남슬라브민족과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널리 착용되었다<그림16>. 하얀 아마로 만들어진 가취(гач)는 서부의 자카르파트지방에서



〈그림16〉 홀로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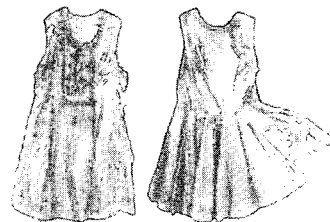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русских, украинцев и белорусов в XIX-начале XXв, р.593

입혀졌다. 우크라이나 서쪽의 자카르파트지방에선 아마를 날실, 울을 씨실로 하여 혼방한 천으로 만든 노가비찌(ногавиці)를 입었다. 패턴은 보이코(Бойко)지방의 가취와 비슷하나, 바지통 밑부분이 좀 더 좁았다. 바지 옆선에 검정이나 검푸른색의 얇은 줄을 부착하였다. 구쥘인들은 검정이나 빨간색의 양모로 만든 가취를 입었다. 여름에는 면으로 만든 뽀르타니찌(портяниця)를 입었다. 바지통을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통을 연결하여 바지통사이에 마름모꼴의 무를 연결하고 작은 조각은 앞쪽에 연결하였다. 바짓부리는 각반으로 감쌌다. 이 각반의 이름은 카프치(капці)라고 하였다. 각반은 무릎아랫부분까지 감아올렸다. 근래에는 각반을 두르지 않고 바짓부리를 한 뺨 가랑 접어올리고 수를 놓기도 한다.

4. 조끼

자켓과 조끼는 우크라이나 민속복식 중 가장 많은 형태로 분화되었다. 여자 조끼류는 다른 동슬라브 민족의 복식과 특히 구별된다. 케르세트카(керсетка)는 길이가 긴 조끼로 우크라이나복식의 특징적인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부지방의 케르세트카(керсетка)는 뒷판의 허리 라인 아랫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A 라인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그림17><그림18>.

우크라이나의 서부 산악지역에서 케프타리(кептарь)라는 털가죽 조끼를 착용한다. 케프타리(кептарь)는 화려하게 여러 가지 색깔의 가죽으로 아플리케수를 놓고 금속징을 받아 장식하였



〈그림17〉 케르세트카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го костюма, р.86



〈그림18〉 케르세트카 착용 모습
История українського костюма, р.144

다. 케프타리(кептарь)는 셔츠 겹치지 않는 짧은 조끼 형태이다¹⁰⁾ <그림19>.

동쪽의 드네프르 지방에서는 뒷판이 평평한 케프타리(кептарь)와 같은 형태의 조끼가 입혀지지 않았다. 18-19세기 그림에도 이 형태의 조끼가 나타나지 않으나 19세기 중반에 들어 서슬라브인들의 케르세트카(керсетка)와 같이 단추로 여미는 짧고 허리선 아랫부분에 주름이 잡혀 넓어지는 형태의 조끼가 등장하였다. 즉 19세기 중반부터 드네프르강유역

과 동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끝자락 부분에 부스가 달린 넓은 조끼가 등장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와서 부스의 갯수가 많아지고 뒷 허리선에 절개가 생겼다. 처음에는 이 형태의 케르세트카는 남녀 공용으로 백색과 갈색의 천으로 만들어졌다.

외투로는 스비타(свита)가 가장 보편적인 우크라이나 복식으로 허리에 절개가 있고 허리 아랫부분에 천을 덧대어 넓혔다. 허리가 절개되어 아랫단이 부풀려진 여성용 외투를 윽카(юпка)라고 하는데 짧은 남자 스비타를 윽카라고 하는 곳도 있다<그림20>.



〈그림19〉 케프타리
На великой Русско й равнине, р.133



〈그림20〉 윽카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ний одяг, р.176

5. 수발양식과 관모

우크라이나에서는 미혼녀와 기혼녀의 수발양식과 관모가 뚜렷히 구분되었다. 고대 우크라이나의 미혼녀는 피발을 하였지만 우크라이나 미혼녀의 특징적인 수발양식은 변발이다. 지역에 따라 대부분 1줄 또는 2줄로 땅아 내렸다. 드네프르 강 좌측 지역(на лево-бережном Поднепровье)에서는 미혼녀는 축제 때는 한 가닥으로 땅아 내렸고 평상시에는 두 가닥으로 땅아 내렸다. 반면



〈그림21〉 땅은 머리
Українское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Одежда", р.59

으로 드네프르 강 우측 지역(на правобережье)에 사는 미혼녀들은 항상 2가닥으로 땅아 내렸는데 축제 때는 땅은 머리채를 등 뒤로 내려뜨렸고 평상시에는 이 2가닥의 머리채를 머리 위에 올려 고정시켰다.^{11) 12)} 몇몇 지역에서는 3-6갈래에서 시작하여 24갈래까지의 많은 갈래의 머리를 한 줄로 땅아 내렸다.¹⁴⁾ 줘토미르신(Житомирин)지방에서는 2줄의 변발을 땅아 내렸다. 각각의 변발은 4-8줄의 땅은 머리가닥을 모아 한 줄로 땅아 내렸다<그림 21>.

우크라이나에서는 19세기까지 땡가와 같은 좁고 긴 모양의 천으로 땅은 머리를 장식하는 장신구가 미혼녀의 머리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끼스니끼(кисники)라 하는 색깔리본으로 땅은 머리를 묶었다.¹⁵⁾

19세기에 들어와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 유역 지방의 머리띠나 끈 모양의 관모는 머리 둘레를 싸서 뒤에서 묶고 풀어진 머리를 가렸다. 이 띠 위에 여러 색깔의 천이나 끈을 박아서 늘어뜨렸다. 엮어 만든 머리띠는 땅은 머리를 단순히 리본이나 꽃으로 덮어서 장식한 것이 발전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견해가 있다.¹⁶⁾

우크라이나 미혼녀의 대표적인 관모는 렌파(л



〈그림22〉 베녹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ний одяг, р.166

풍토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비교적 따뜻한 우크라이나에는 동토의 땅 소련의 곡창지대로 유명하며 크고 작은 꽃이 풍부하다. 우크라이나 미혼녀들은 밝은 색깔의 리본(렌파)들을 머리둘레에 묶고, 나머지 자락을 길게 늘어뜨리곤 하였다. 이 리본 위에 베녹과 같이 꽃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밝은 색깔의 끈이나 디테일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관모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미혼녀의 두식 중에서 단단한 틀이 있는 관모는 기혼녀의 관모와 형태가 비슷하나 정수리 부분이 열려있다. 혼인 후에는 이 관모의 모정을 막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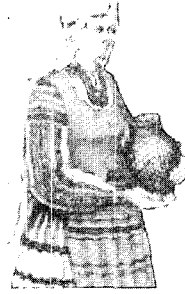
수건형 관모 또한 기혼녀의 것까 흡사하지만 착용방법에 있어서 정수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구별된 착용을 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스카프형 관모를 머리에 두른 후 앞부분에서 묶고 매듭 끝자락을 세웠다.

우크라이나의 기혼녀도 다른 동슬라브민족의 기혼녀와 같이 머리카락을 감추었다. 기혼녀가 머리카락을 보였을 시에는 그해 수확이 없을 것이며 가축들이 죽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다. 18세기의 불란서 여행가 I. Koks는 우크라이나의 기혼녀들은 두 갈래로 머리를 뺏아 늘어뜨리고 그 위에 수건을 썼으나,¹⁷⁾ 19-20세기로 오면서 머리를 쪽을 지어 관모 속에 넣어서 정리하였다.

동 슬라브 민족 여성의 기본적인 두식인 수건형 관모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나미

엔타)이다. 축제 때는 얇은 베녹(венок)을 착용하였다<그림22>. 우크라이나의 중부 지방에서는 뒷부분은 큰 꽃으로 장식하고 앞쪽은 작은 꽃으로 장식한 베녹을 착용하였다. 겨울에는 꽃 대신 색깔을 들인 깃털로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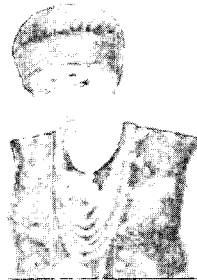
베녹은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혼녀의 대표적인 관모이다. 백러시아의 베녹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는 베녹을 생화로 장식하였다. 이것은 기후



〈그림23〉 나미트끼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го костюма, р.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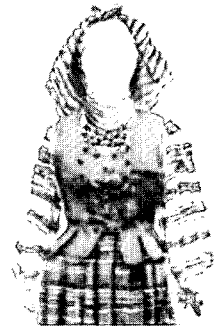
기혼녀의 일반적인 수식이었으나 이들의 착용법과 매듭법은 턱 밑이나, 턱밑을 지나서 목 뒤에서 매듭을 지어 머리와 목을 감싸주는 형태로 착용하는 러시아와 백러시아와는 다르게 머리위나 이마위, 또는 뒷통수에 미듭을 짓는다. 우크라이나 민족의 자유분방한 민족성과 따뜻한 기후 풍토의 영향을 보여준다<그림24>.

모자의 형태의 관모로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단한 틀이 없는 머리카락을 정리 하는 데 사용되었던 스포르닉(сборник)과 단단한 틀이 있는 오침까(очипка)이다. 스포르닉이나 부드러운 오침까는 빨라트까 밑에 썼었으나 이것이 사라지고 단단한 틀이 있는 오침까를 비단으로 만들어 착용하였다¹⁸⁾



〈그림25〉 오침까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го костюма, р.96

트끼(намітки)나 페레미트끼(перемітки)라는 이름으로 폭 0.5m, 길이 5m 정도의 린넨으로 만든 직사각형 수건형태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관모와 함께 착용되었다<그림23>. 동슬라브 민족의 중요한 여성관모인 스카프형태의 플라트까(платка)도 우크라이나



〈그림24〉 플라트까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го костюма, р.96

<그림25>.

우크라이나에서 특이한 남자 수발형태가 발견되는데 이것은 앞

이마에 머리를 내리고 뒷머리를 1-2줄로 땅아서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이다. 이 수발형태는 서부와 북부지방에서 19세기까지 보존되어 왔다. 동부 우크라이나에서는 보다 간단한 수발형태로 앞머리는 이마를 덮을 정도까지 자르고 뒷머리는 앞머리보다 조금 길게 잘랐다. 동부 우크라이나의 뽀드드네 프로비야 지방에서는 19세기에 뽀드 고로속(По д горшок)이라는 수발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릇을 머리에 덮고 나머지 부분을 자르는데 정수리 부분에 만 머리가 덮이는 형태이다. 이런 수발형태는 수염을 기르지 않는 곳에서 발달하였다.¹⁹⁾

전통적으로 머리를 모두 밀고 정수리에서 변발을 내린 개채변발인 오셀레데찌(Оселедець)를 하였는데 이 형태는 10세기부터 행해져 왔다. 변발을 귀에 감아 걸기도하였다. 도시인들이나 높은 계층사람들은 폴란드의 유행을 받아들여 모자를 쓸 때 변발을 정수리에 동그랗게 감아올렸다<그림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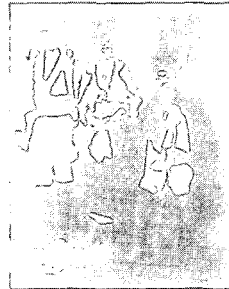


<그림26> 오셀레데찌
На великой Русской равнине, p.101

우크라이나 남성의 관모는 다양하였다. 중부지방에서는 꾸취믹(кучмы), 까출믹(качулы)라는 검정색, 회색, 흰색의 높은 털모자를 착용하였다. 관모의 형태는 원뿔모양이나 원통모양의 칼팍(колпак)이라는 관모와 비슷한 형태로 비교적 고대의 단순한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펠트로 만든 관모를 실롬(шлом), 율롬(юлом), 알라막(яломок)이라 하였다<그림27>.

이들의 모양은 타원형과 원통형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의 모양을 간직한 것으로 백러시아 접경지역에 남아있다. 고대에는 이러한 모자들을 두꺼운 실로 짜서 만든 고대 슬라브 민족의 두건의 형태로 보여진다.

북부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펠트나 짚으로 만든 챙 모자가 착용되었다. 브릴린(брилин), 크리사니(крисани), 까뿔류히(капелюхи)등이 있다. 이 모자들의 모정은 반원형이나 원통형이다<그림28>.



<그림27> 알라막을 쓴 노인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ний одяг, p.192



<그림28> 까뿔류히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ний одяг, p.129

V. 요약

각 지방별 조형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크라이나 중부지방복식은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복식으로 도우스타프카 사로취카를 착용하였다. 이 사로취카는 우스타프카가 따로 달려 풍성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키예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같이 빨강색과 검은색의 자수로 장식하였으나 기법이 다른 지역과 달라 검은 테두리에 빨간색의 평수로 안을 채우는 형태였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수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의는 여성은 사로취카 위에 빨라흐타를 착용하고 그 위에 자빠스카(Запаска)를 착용하였다. 남성은 하의로 샤라바릭(шаровары)를 착용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조끼는 전체 복식착용의 실루엣을 결정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케르세트카(керсетка)로 인해 하의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A라인실루엣을 형성하였다.

2) 서부지방은 폴란드에 속하였다가 예카테리나 대제에 의해 해방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산악지대로 특히 구쾨인들이 살고 있다. 이 지역의 사로취

카는 우스타프카가 소매에 연결되어 마름질된 형태와 홀로뻘키로 우스타프카가 없는 튜닉형태의 사로취카를 주로 착용하였다. 자수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하의는 여성은 오브고르트카를 사로취카 위에 돌려 입었고 그 위에 자빠스카를 입었다. 남성은 홀로쉬니 라는 바지로 무가 없고 몸에 잘 맞았다. 산악지역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짧은 조끼가 많이 착용되어 역Y형의 실루엣이 형성되며 구쫘인은 일자형의 긴 조끼로 H형의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3)우크라이나 북부지방은 폴레시에지방으로 백러시아의 남부지역 복식과 유사하다. 사로취카는 우스타프카가 있는 형태이며 자수는 빨강색과 검정색의 기하학적 무늬와 수평선을 이용한 줄무늬를 사용하였다. 여성하의는 일반적인 치마의 형태인 안다락(андарак)을 주로 착용하였고 그 위에 앞치마를 돌렸다. 조끼는 중부지방의 린넨으로 만든 A라인으로 조끼가 아닌 콜셋모양의 몸에 꼭 맞는 형태의 조끼로 백러시아 민족의 베즈루카프카와 같은 형태의 조끼를 착용하여 아워글래스의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남성의 바지도 백러시아와 같은 뽀르트(порт)를 착용하였다<표1>.

VI. 결 론

우크라이나 민족복식을 지역별로 나누어 조형성을 고찰해 본 결과 위 세 지역의 복식은 현격한

조형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이 고찰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별 전통복식이 주변국가와 많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조형적 차이는 우크라이나 민족복식이 고대 키예프 루시의 후계자로 우크라이나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문화접변에 의한 타 문화의 유입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여성 하의로 북부지방은 다른 지방과 달리 치마모양의 안다락(андарак)이 착용되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북부지방의 복식이 주변문화접변으로 인해 백러시아복식의 유입을 보여주며, 우크라이나의 중부지방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착용된 뿔라흐타(Плахта)가 백러시아의 드네프르강의 유역의 단지 몇몇 지역에서만 착용된다는 것은 드네프르강에 의한 우크라이나 복식문화의 백러시아 유입을 보여준다. 이를 볼 때, 키예프와 드네프르강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중부지방의 복식이 우크라이나민족의 고유의 복식으로 전통적 조형성을 보존되어진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복식형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민족복식의 전통적인 조형성을 가지고 있는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드네프르강 유역의 중부지방복식의 조형미를 동슬라브민족복식의 전통적인 조형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중부지방의 전통복식의 조형성을 서, 남 슬라브민족의 민족복식의 전통적 조형성 규명을 위한 비교연구의 기초 지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1> 지방별 조형성 비교

		중부 지방	서부 지방	북부 지방
사로취카	형태	도우스타프카	홀로뻘끼, 우스타프카가 붙은형태	도우스타프카
	자수	검은테두리에 빨강색 평수 기하학적 무늬	빨강과 파란색 기하학적 무늬 구쫘인-다색, 사식적 꽃무늬	빨강색, 약간의 검정 기하학적무늬, 수평선
치마		뿔라흐타, 자빠스카	오브고르트카, 자빠스카	안다락, 자빠스카
바지		샤라바릭	홀로쉬니	뽀르트
조끼		케르세트카	케르세트카 구쫘인-케프타리	베즈루카프카
여성복식의 실루엣		A라인	역 Y라인 구쫘인-H라인	아워글라스라인

참고문헌

- 1) Рыбаков, В. А. (1951). Торговля и торговые пути. М-Л, pp.315-316.
- 2) 러시아와 독립국가 연합을 아는 사전 (1992). 한길사, p.535.
- 3) Коммиссаржевский, Ф. Ф. (1998). История костюма. Мин, p.455.
- 4) Ibid., p.456.
- 5) Маслова, Г. С. (1956).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русских, украинцев и белорусов В XIX - начале XX в.. //Востоchnослав. Этногр. сборник. М, p.577.
- 6) воробьев, Н. И. (1950).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казанских татар. Каань, pp.310-313.
- 7) Андрианов, Б. (1986) На великой русской равнине. М, p.110.
- 8)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ний одяг Ukrain folk costume (1992). *World Federation of Ukrainian Women's organizations Folk Art Committee*. Toronto-Philadelphia, pp.266-269.
- 9) Ніколаєва, Т. (1996).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го костюма. Київ, p.72.
- 10) Андрианов, Б. (1986). Op. cit., p.133.
- 11) Николаева, Т. А. (1987).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Киев, p.71.
- 12) Украинское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одежда". (1961). Киев. альбом, p.59.
- 13) Быт малорусского крестьянина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Полтавской губернии (1859).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Спб., вып. 3, p.42.
- 14) Николаева, Т. А. (1987). Op. cit., p.71.
- 15) Украинское народное искусство, "одежда". (1961). Op. cit., pp.27-28.
- 16) Николаева, Т. А. (1987). Op. cit., p.71.
- 17) Матейко, К. І. (1977).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ний одяг. Видавництво. Наука и дума, p.20.
- 18) Николаева, Т. А. (1987). Op. cit., p.73.
- 19) Пой Су-Бин (1999). Головные уборы Восточных Славян. Монголоязычных народов и Корейцев: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 взаимовлияние. Мин. 박사학위논문, p.88.
- 20) Walter, A. & Fairsevis, JR. (1971). *Costumes of the East*.
- 21) Frances, K. (1996). *Ethnic dress*. N.Y., Facts On File.
- 22) Robert, H. & Phyllida, L. (2000). *Folk Costumes - of the World*. N.Y. Cassell.
- 23) Domnenkova, L.V. & Woohyun Cho, Subin Choi (2001). Symbolism of traditional Eastern slavic
- 24) *Costum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Vol. 1*. Korean Society of Costume. Dec, pp.43-55.
- 25) 조우현, 최수빈 (2000). 동슬라브민족의 여성 두식에 관한 연구. *복식 (50)*, pp.33-50.
- 26) 조우현, 최수빈 (2001). 19-20세기 동슬라브민족 전통혼례복의 고찰. *한국의류학 회지 25(2)*, pp.275-286.